

보도시점

2026. 9. 3.(목) 12시 이후

배포

2026. 9. 3.(목)

세계한상대회 한 달 앞으로...한인 경제인·국내 기업 인천에 모인다

- 세계한인회장대회·세계한인차세대대회와 첫 연계 개최...한인 네트워크 한자리에
- 340개 기업 전시 부스·글로벌 바이어 150여 명 참여...국내 기업 해외 판로 개척 지원
- 정부, 국가정책조정회의서 추진계획 점검...부처 간 협력 강화

【관련 국정과제】 123.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

- 전 세계 한인 경제인과 국내 기업이 만나는 ‘제24차 세계한상대회’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.
- 재외동포청(청장 김경협)은 오는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제24차 세계한상대회를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.
- 대회 조직위원회(조직위원장 윤덕창 아시아태평양한국식품수입상연합회장)는 현장점검과 실무회의 등을 통해 주요 프로그램과 행사 준비 상황을 점검해 왔다.
- 정부도 성공적인 대회 개최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한다.
- 정부는 9월 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3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‘제24차 세계한상대회 추진계획’을 논의하고, 한인 경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방안과 부처별 협력 사항을 점검했다.
- 특히 올해 세계한상대회는 처음으로 세계한인회장대회, 세계한인차세대대회와 연계해 열린다. 세계 각국의 한인 경제인을 비롯해 한인사회 리더

와 차세대 인재들이 같은 기간 인천에 모여면서 분야와 세대를 잇는 네트워크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.

- 국내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.
- 행사장에는 340개 기업 전시 부스를 마련하고 글로벌 바이어 150여 명이 참여하는 K-컬처 기반 기업전시회를 연다. 참가 기업은 해외 바이어와 직접 만나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수출 상담과 사업 협력 기회를 모색한다.
- 바이어와 국내 기업 간 비즈니스 교류 프로그램을 비롯해 글로벌 벤처캐피털(VC)이 참여하는 스타트업 해외 진출 프로그램 등도 마련한다.
-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“세계 곳곳에서 활동하는 한인 경제인의 네트워크는 우리 기업이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큰 자산”이라며 “이번 대회가 만남과 교류에 그치지 않고 수출과 투자, 사업 협력으로 이어지는 비즈니스의 장이 되도록 조직위원회를 도와 잘 준비하겠다”고 밝혔다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동포경제지원과	책임자	과 장 이경아 (032-585-3123)
		담당자	사무관 황인용 (032-585-3293)